

# 세기말·세기초의 루마니아 문학 (II): 세기말의 루마니아 문학 (1880-1900)

김 정 환  
(한국의국어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세기말의 루마니아 문단과 시대 상황
- III. ‘동시대 Contemporanul’와 게레아 C.D.Gherea
- IV. 모더니즘의 시작 : 마체돈스키 Al. Macedonski
- V. 초기 세머너토리즘 Presemănătorismul 계열 작가
  - 5.1. 제오르제 코쉬북 George Coșbuc
  - 5.2. 델라브란체아 Barbu Ștefănescu Delavrancea
  - 5.3. 잠피레스쿠 Duiliu Zamfirescu
  - 5.4. 블라후쨌 Alexandru Vlahuță
- VI. 맺는말

## I. 들어가는 말

19 세기말, 20 세기초 루마니아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문학활동들은 루마니아 문학사에 있어서 현대문학의 태동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기말·세기초의 루마니아 문학은 한편으로 1860년대 쥬니메아(Junimea) 문학<sup>1)</sup>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문예부흥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차 세계대전 동안의 문학이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그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세기말의 루마니아 문학(1880-1900)을 I편으로, 세기초의 루

1) 1863년 이아쉬(Iași)에서 결성된 문학단체 ‘쥬니메아(junimea)’는 그의 문예지인 ‘문학좌담(Convorbiri literare)’(1867-1944)을 통하여 낭만주의 문학을 기초로 한 문예부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루마니아 문학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Cf. 김성기 1999: 81-92).

마니아 문학(1900-1916)을 II편으로 나누어 기획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말 루마니아의 문학 특징으로 나타나는 경향문학(artă cu tendință)과 문학논쟁, 모더니즘(modernismul), 초기 세머너토리즘(presemănătorismul) 그리고 사실주의(realismul)를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와 문학의 흐름을 소개한다.

## II. 세기말의 루마니아 문단과 시대 상황

세기말의 시작과 더불어 루마니아 문학은 모든 분야로부터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루마니아는 창작의 근거를 구성하고 있던 작가들의 결여와 소멸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기를 맞이하였고, 필연적으로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889년 에미네스쿠(Eminescu), 크레안거(Creangă), 1892년 까라지알레(Caragiale)의 죽음과 기관지인 ‘문학 좌담’의 와해가 있었고, 뒤이은 몇 년 동안 슬라비치(Slavici), 코쉬북(Coșbuc), 블라후쨌(Vlahuță), 잠피레스쿠(Duliu Zamfirescu) 등의 작가들에 의한 재능과 노력은 사태를 만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마야호로 역사의 시대는 더 이상 유니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루마니아 역사에 있어 19세기말의 마지막 20년은 전국에 걸친 변화의 시기로 기록되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아르데알(Ardeal), 부코비나(Bucovina) 등지로부터 시작된다. 1884년에 한시적으로 출간된 정기간행물 《바사라비아의 전령》(Mesagerul basarabean)은 농민문제에 있어 사회적 모순의 심화와 사회적 동요의 강화를 주창했으며, 도시 문제에 있어 무산계급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하여 자본 경제하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경향을 띤 초기 문학 동호회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내 그들의 기관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을 위한 최초의 신문인 《루마니아 활판》(Tipograful român)이 1865년 창간되었고, 이후 《활판 연대기》(Analele tipografice)(1869-1872), 《루마니아 노동자》(Lucrătorul român)(1872-1874) 등이 잇따라 출간되었다(Micu 1994: 296). 독립전쟁 기간 중, 사회주의자들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혁명적 민주주의의 사상들을 확산시켰다. 세기말의 마지막 10년 동안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노동자 연합들이 그들의 다양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

고, 이러한 움직임은 《고보라》(Govora), 《구텐베르그》(Gutenberg), 《램프》(Lampa) (이상 1886), 《노동자》(Muncitorul), 《해방》(Dezrobirea) (이상 1887), 《형제애》(Frăția)(1888), 《지주》(Ciocoiul), 《봉기》(Revolta), 《붉은 깃발》(Steagul roșu), 《노동》(Munca) (이상 1890) 등과 같은 신문들을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동시대》(Contemporanul)(1881), 《미래의 다치아》(Dacia viitoare), 《해방》(Emanciparea) (이상 1883), 《사회 잡지》(Revista socială)(1884), 《사회 비평》(Critica socială), 《인간의 권리》(Drepturile omului) (이상 1885), 《新학교》(Școala nouă)(1889) 등과 같은 사회주의 경향을 띤 문화 잡지들이 편집·출간되면서 역사의 한 장을 수놓았다(Ibid.: 297). 1893년에는 루마니아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민주당(Partidul social-democrat)이 창당되었고, 이 시기를 즈음으로 농민들과 그들의 문제가 들끓기 시작했다. 봉건 잔류 세력의 자본 집중화로 인한 농업문제의 부각과 토지 소유의 문제는 농민들의 폭동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888년 절정에 이르렀다.

세기말의 사건과 환경 속에서 농민들의 현실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농민이나 시골 출신의 작가 수도 계속 증가되었다(Ibid.).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문학의 정신적 흐름은 사회적·역사적 혼란과 더불어 유니메아 문학의 영향 소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진주의와 낭만주의의 가치로 대변되는 미학적 보수주의를 지향한 유니메아는 상징주의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학 가치와 국가의 본질·마을의 정신을 표방한 초기 세머너토리즘적 문학 경향 그리고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향문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 경향의 초기 움직임은 문예지 《문학인》(Literatorul)(1880), 《동시대》(Contemporanul)(1881) 등으로 대표되는 반유니미즘 그룹의 출현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의 문단에는 모더니즘의 시도와 세머너토리즘의 토대가 마련되는 현상 이외에도 퇴폐경향을 띤 세기말적 병리현상으로 자생적인 데카당트 문학<sup>2)</sup>(decadentismul)과 유니메아의 아류문학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2) 이 데카당트 문학(decadentism)은 루마니아에서 엄세주의(pesimism)와 환멸주의(deceptionism)가 혼합된 형태로 발전된다. 환멸주의는 ‘에미네스쿠 작품의 엄세성(Pesimismul eminescian)’(Rotaru 1971: 549)을 의미한다.

또한 순수 문학과 경향 문학 사이의 논쟁과 더불어 사실주의 또는 ‘대중 소설 이론(teoria romanului popular)’으로 대표되는 문학논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루마니아 문학의 사실주의적인 요소들<sup>3)</sup>은 전승 문학으로부터 1848년 파쇼티스트 세대(generația pașoptistă)<sup>4)</sup>에 이르기까지 이미 존재했으며, 이러한 사실주의에 대한 실험과 이론은 19세기말에 즈음하여 체계적인 계통의 확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Ⅲ. 《동시대》와 게레아 C. D. Gherea

문학과 과학의 잡지를 표방한 《동시대》<sup>5)</sup>는 권두언 ‘우리들의 독자들에게(Către cititorii noștri)’에서 ‘허풍과 무지에 대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싸워나갈 것과 ‘유럽의 과학을 견지하는 루마니아의 유일지’로 인식될 것을 《동시대》의 목적으로 독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Micu 1994: 299). 유니메아 주의자들을 겨냥한 ‘비진리와의 투쟁’ 또는 ‘부도덕과의 투쟁’은

---

3) 민간 전승의 풍자나 연대기, 이비레아놀(A. Ivireanul)의 ‘교회와 설교(Didahiile)’, 부다이 텔레아누(I. Budai-Deleanu)의 대서사시 ‘집시(Tiganiada)’, 골레스쿠(D. Golescu)의 여행기록, 인간의 다양한 유형에 관하여 언급한 네그루찌(C. Negruzzi)의 ‘생리학(Fiziologiile)’, 기카(I. Ghica)의 편지, 알렉산드리(V. Alecsandri)의 코메디(comedie), 하쉬테우(B. P. Hașdeu)의 단편소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박정오 1997: 42).

4) 이 시대는 1848년의 혁명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Dacia literară’ 등의 많은 문학 잡지와 신문들이 이 시대에 많은 활동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 시대는 두 가지 문학적 특색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코걸니체아누(M. Kogălniceanu)(1817-1891), 벌체스쿠(N. Bălcescu)(1819-1852), 루소(Ruso)(1819-1949) 등의 작가들이 루마니아 국가정신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찬란했던 역사에 관심을 두고 그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국의 모습이든 자국의 모습이든 낭만주의적 자연 풍경을 묘사했다는 점이다(김성기 1996: 123).

5) ‘동시대’(1881-1891)는 루마니아 문학사에 있어 사회주의 노동 움직임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출판물로서 이온 너데즈데(Ion Nădejde)(1854-1928) 등에 의해 1881년 이아쉬에서 창간되었다(Rotaru 1971: 541). ‘동시대’는 막시즘을 퍼뜨리고 모든 인문주의적 분야와 문학의 연구에 실증주의를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세계의 과학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적 작가의 작품들을 번역·소개하였다(김성기 1999: 92).

문예지 《동시대》의 제명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부도덕(Rău)’은 ‘사기’나 ‘허풍’, ‘무지’, ‘내용 없는 형식(formele fără fond)’ 또는 ‘비진리(neadevărul)’를 의미한다.

우리들의 목표는 특히 학교 교과서와 같은 잘못된 과학적 산물에 대해 끝까지 싸우는데 있다. 만약 이러한 부도덕이 팽창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창기의 《동시대》는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의 언급이 없었던 ‘부도덕과의 투쟁’을 위한 과학적 대중 문예지였고, 학교 교육의 전근대성과 봉건성을 타파하고 교육의 정상화와 비평적 정신의 함양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885년을 기점으로 막시즘 선언의 대중성에 기초한 작품들이 게재되면서 이러한 경향에는 변화가 있게 되었다. 게레아(C. Dobrogeanu-Gherea)<sup>6)</sup>의 선언과 정치적 활동에 힘입은 ‘동시대’는 19세기말까지 문예계에 영향을 미치던 ‘문학좌담’의 미학성을 제압하기 시작하였고, 그 성격 또한 사회주의 경향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게레아와 마이오레스쿠(Maioreescu) 사이에 문학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sup>7)</sup>

---

6) 1855년 5월 21일 우크라이나의 슬라비안카(Slavianka)에서 출생한 도브로제아누 게레아(C. Dobrogeanu-Gherea: 본명은 콘스탄틴 카스 Constantin Cass 또는 카츠 Katz, 1920년 5월 7일 부쿠레슈티에서 사망)는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하르코프(Harkov)의 과학부에 진학하였다. 인민당의 학생 클럽에서 활동하던 중 1875년 모스크바로 가서 노동운동을 한 후 루마니아에 입성한다. 이아쉬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한 후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설립에 참여한다. 1877-1878 전쟁 기간동안 군 위생병으로 근무하던 중 생포되어 메젠(Mezen)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노르웨이와 프랑스 등지를 전전하다가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와 프로이예슈티(Ploiești)에 정착하였다. 그의 전 생애는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동시대’와 같은 사회주의 노동 잡지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3권(2,3권은 사후 출간)으로 구성된 ‘비평연구(Studii critice)’가 있다.

7) 마이오레스쿠(Maioreescu)와 게레아(Gherea)의 논쟁은 간략하게 ‘순수문학(artă pentru artă)’과 ‘경향문학(artă cu tendinț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학에 있어 마이오레스쿠가 헤겔과 쇼펜하우어에 영향을 받았다면, 게레아는 예술을 사회의 산물로 간주하였고, 텐의 결정주의(determinismul)를 주창하였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마이오레스쿠는 비경향성에, 게레아는 경향성에 관심을 가

‘판결적’ 비평을 추구한 마이오레스쿠적 스타일에 비해 게레아는 ‘설명적’ 비평에 근거한 새로운 비평 방법을 루마니아 문단에 소개하였다. 게레아는 묻고 답해야 하는 과학적 비평의 네 가지 원칙적 질문들을 제기했다: 1) 예술가의 작품과 그것을 생산한 사회적 환경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사회적 질서의 필수적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따라서); 2) 그러한 환경 위에서 창조된 작품은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는가? (비평이 사회적 진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예술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는 이해의 조건하에서 여기 도덕적 관점이 개입된다); 3) 이러한 영향은 얼마만큼 폭넓을 수 있으며, 확실할 수 있는가? (미세한 영향을 미치는 작품들이 있는 반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대중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예술 작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학적 가치 평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어떤 수단들을 통하여 예술적 또는 문학적 창작물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가? (게레아는 분석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Rotaru 1971: 547)

독일의 이상적 기원에 바탕을 둔 유니메아의 미학적 원칙들과 수사학적 이상주의에 반기를 든 게레아는 과학적 시각에 바탕을 둔 유물론적 미학 개념, 프랑스 고전 실증철학 사상, 역사 유물론과 러시아 혁명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의 증식된 사상은 예술작품이 일정한 동기(cauzele) 없이 해석된 만족감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전제조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논저 ‘비평에 관하여(Asupra criticei)’, ‘과학적 비평과 형이상학적 비평에 관하여(Asupra criticei metafizice și celei științifice)’, ‘과학적 미학과 형이상학적 미학에 관하여(Asupra esteticei metafizice și științifice)’, ‘예술과 사회적 이상(Idealurile sociale și arta)’, ‘예술의 주제와 경향주의(Tendenționism și tezism în artă)’ 등을 통하여 게레아는 예술과 사회의

---

졌고, 마이오레스쿠는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영혼의 평안함을 강조한 반면, 게레아는 반드시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예술가의 역할에 있어 마이오레스쿠는 예술가를 보편적 명상가로, 게레아는 국가 목적에 이익이 될 수 있게 그의 예술적인 힘을 쏟아 붓는 인간으로 그리고 문학비평에 있어서 마이오레스쿠는 비평의 선구자로서, 게레아는 과학적인 문학 비평을 도입한 혁신가로서 기여했다(박정오 1997: 52-58). 비판적인 무대가 지배하던 루마니아 문단은 게레아를 통하여 분석적인 비평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이오레스쿠가 문학의 길잡이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했다면, 게레아는 비평적 방법론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상세한 실험을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다.

연관성, 예술가의 도덕적 역할과 그의 부산물로서의 창작 그리고 예술의 경향성을 주장하였다. 작품은 그 자체로서 해롭든 유용하든 일정한 영향을 사회에 미쳐야 하며, 모든 연구자들의 역할은 어떤 사회적·도덕적 영향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명지어졌는지 설정하는데 있다. 결국 작가와 작품은 사회적 ‘수단’의 산물이며, 시인은 모든 것에 앞서 사회적 수단의 산물이 되고 있다(Rotaru 1971: 547-549). 또한 비평은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최초의 권리와 핵심적 임무 그리고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가져야만 한다. 막시즘에 바탕을 둔 ‘문학과 경제 유물론(Materialismul economic și literatură)’을 통하여 게레아는 최후의 역사적 전개의 결정자는 경제가가 될 것이며, 그의 과학적 비평이 심리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Piru 1981: 195). 이러한 그의 반영은 초기 루마니아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에 기여하였고, 세속적 유물론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학적 사상에 바탕을 둔 게레아는 에미네스쿠주의(eminescianismul), 모방적 환멸주의, 전원적 사회주의에 의해 부과된 루마니아 문학 구조를 해방시키는 능동적인 모더니즘의 지지자였다(Zaciu 1975: 63). 문학적 측면에서 《동시대》는 사실주의적 문학과 사회적 성격을 담은 민속학에 주요 관심을 가졌으며, 게레아의 비평적 방법들이 실험된 장이었다. 게레아와 《동시대》의 미학적 사상과 비평의 풍부한 토대는 《문학과 과학》(Literatură și știință)(1883-1884), 《문학 사건》(Evenimentul literar)(1893-1894), 《문학과 과학의 신세계》(Lumea nouă științifică și literară)(1895-1896)와 같은 잡지들 속에서 다른 작가들의 활동을 촉진시켰고, 세기말의 마지막 십 년 동안 많은 작가들이 사회주의 운동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예술의 경향주의(tendenționismul în artă)와 같은 독특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세기말의 문학적 양식은 ‘순수예술(artă pentru artă)’의 지지자와 ‘경향문학(artă cu tendință)’의 지지자로 양분되어 발전하였다.

#### IV. 모더니즘의 시작: 마체돈스키 Al. Macedonski

19세기말을 지배하던 전통주의 문학의 세계에 반기를 들며, 당시의 문

단에 모더니즘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은 이는 알렉산드루 마체돈스키(Alexandru Macedonski)(1854-1920)이다.<sup>8)</sup> 반봉건적·반쥬니미즘적 경향을 가지며, 악기주의(Instrumentalism) 또는 악기적 상징주의의<sup>9)</sup>(Simbolismul instrumentalist)로 불리는 상징주의 이론과 미학을 그가 1880년 창간한 문예지 《문학인》(Literatorul)에 소개하였다.

모더니즘의 시작인 상징주의의 소개와 도입에 기여한 문예지 ‘문학인’은 1880년부터 1918년까지 8번에 걸쳐 간헐적으로 발행되었다. 초창기 ‘문학인’은 사회와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을 주창하나, 이후 시예술에 전념하기 시작하였다. 상징주의 시인으로서 보다는 상징주의 이론가로서 더 많이 언급되는 마체돈스키는 음악과 이미지의 심상 이외에도 상징주의 시가 현대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하며, 상징주의 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시 이론과 사설들을 발표했다. 일반적인 문학들의 혼용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마체돈스키는 ‘시의 논리성에 관하여(Despre logica poeziei)’(1880), ‘시 예술(Arta versurilor)’(1881), ‘미래의 시(Poezia viitorului)’(1892)<sup>10)</sup> 등의 사설을 《문학인》에 기고하며, 시의 상징, 암시, 교감, 형태와 음악성, 이미지와 시적 이상 등과 같은 시적 혁신들을 도입

8) 새로운 문예사조를 소개한 시인의 무모한 도전과 용기는 당시 문단으로부터 ‘돈 키호테’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으며, 콘스탄티네스쿠(Constantinescu)는 작가를 ‘돈 키호테(Don Quijote)와 산초 뱀자(Sancho Panza)가 합성된 기이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Constantinescu 1974: 12). 전형적인 인문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시인의 돈키호테적 기질은 그의 도발적인 자아의 의지가 나타나는 드라마적인 삶과 더불어 허구화된 이미지를 표현한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9) ‘악기주의(도구주의)’, ‘악기적 상징주의’로 불려졌던 초창기 루마니아 상징주의는 소리의 유희와 음악성을 중요시 여겼다. 으(i), 우(u), 어(ă)와 같이 닫힌 소리와 아(a), 오(o)처럼 강한 소리가 주는 이미지적 역할은 시어가 주는 느낌과 감각을 차별화 하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 시적 미학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의식한 마체돈스키는 그의 사설 ‘상징주의(Simbolism)’(1895)를 통하여 시의 절대적 음악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김정환 2000: 101-102).

10) 미래의 시는 이상의 영원한 원칙인 음악과 이미지의 형태로만 존재한다(Macedonski 1880: 1, Micu 1994: 298 그리고 Bote 1966: 244에서 재인용). 마체돈스키에게 있어서 시는 음악성과 더불어 이미지 속에서 존재한다. 마체돈스키에게 있어서 ‘이미지한다’(a imagina)는 것은 ‘명상하다’(a cugeta)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다’(a închipui)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 분야는 ‘명상’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 ‘상상력’의 소산으로 존재한다. 즉, 시의 색채들과 조화, 그리고 미학적 형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Rotaru 1971: 537-538).

하였다. 보들레르로부터 계승 발전되어 오는 퇴폐적이고 상징적인 시의 심상들, 암시의 경작, 죽음의 이상 그리고 우울에 젖은 동시대인의 갈등을 표현하고자 한 《문학인》은 1918년 발간 중지될 때까지 바코비아(G. Bacovia), 갈라 갈락손(Gala Galaction), 잠피레스쿠(M. Zamfirescu), 이온 바르부(Ion Barbu) 등과 같은 많은 신세대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마체돈스키의 시속에는 시인과 자아에 대한 그리고 기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깊게 내재되어있다. 드라마적인 이미지 속에 처한 현실적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인은 그의 시를 통해 이러한 이해들을 단지 관독할 뿐이며, 저주의 감정과 ‘사탄주의’(Satanism)<sup>11)</sup>에 사로잡힌 그의 시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이 현대시인 앞에서 시는 하나의 확신이 아니고,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메카’(Meka)와 같은 신기루로 늘 남아 있다.

마체돈스키의 경우처럼, 시적 양심이 시로부터 이탈되어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는 창조자의 첫 갈등을 루마니아 문학은 용서한다. 왜냐하면, 시인은 두 개의 방향으로 결부되는 ‘낯음’과 ‘새로움’ 사이의 지속적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시의 괴물(himera)을 쫓는다. 시가 에미네스쿠를 위해 존재의 일반적 표현이고자 한다면, 시는 기꺼이 에미네스쿠를 위해 그렇게 한다. 하지만 마체돈스키는 시를 정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시가 그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시와 양심사이의 긴 논쟁이 열리는 것이다 (Manolescu 1968: 11-12).

그는 시를 확실성 속에서가 아닌 불확실성 속에서, 그리고 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시를 찾으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루마니아 문학 속에서 ‘악기적 상징주의’(simbolismul instrumentalist)와 같은 절대적 새로움이 마체돈스키에 의해 실험되었으며(Micu 1994: 309-310),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대적인 실험

---

11) 마체돈스키의 관점 속에 나타난 사탄의 존재에 대해 미쿠(Micu 1994: 309-310)는 ‘매혹스러운 왕자’나 ‘최면에 걸린 창백한 천사’ 혹은 ‘순결한 처녀’에 가까운 창백함의 미학적 존재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시인의 사탄주의는 신의 이상적 경지에 오를 때까지 팽창되며, 행복에 도취되는 자아의 선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Streinu 1939: 68). 마체돈스키의 사탄 찬미가가 보들레르의 ‘사탄의 탄원’과 같은 연결선 상에 있다고 보는 비아누(Vianu 1972: 530)는 마체돈스키의 사탄이 아직 보들레르적인 사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채 유사한 면만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들이 그의 시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마체돈스키<sup>12)</sup>의 주요 시집으로는 『시』(Poezii)(1882), 『보다 높이』(Excelsior)(1895), 『성스러운 꽃들』(Flori sacre)(1912) 그리고 2운각 13행시 ‘론델(Rondel)’<sup>13)</sup>들로 구성된 『회송곡』(Poema rondelurilor)(1927)<sup>14)</sup>이 있으며, 시인의 대표적인 연작시로는 풍자와 역설을 내용으로 하는 ‘밤의 시리즈(ciclul Noptilor)’<sup>15)</sup>가 있다.

---

12) 마리노(Marino 1967)와 갈디(Galdi 1971: 249-250)는 마체돈스키의 작시 세계를 세 기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기간(1866-1882)은 그의 유년 시절로부터 첫 시집인 ‘시(Poezii)’가 발간 될 때까지이며, 에미네스쿠(Eminescu)의 시 활동이 지배되던 시절이다. 1883년부터 시집 ‘성스러운 꽃들(Flori sacre)’이 발간될 때까지의 두 번째 기간은 성숙기의 기간에 해당되며, 마지막 기간(1913-1920)은 창조기의 기간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지막 기간은 다양한 ‘회송곡(Rondel)’들의 시리즈를 통해 마체돈스키의 상징시가 완성되어 가는 기간이다.

13) 프랑스에서 온 용어인 론델(Rondel)은 춤과 노래로부터 기원되는 프랑스 중세 시대의 문학 속에서 생성되었으며, 현대 문학의 개념 속에서 ‘론델’은 정형시의 표본이 되고 있다. 첫 행이나 첫 번째 행들은 시의 중간부나 후반부에서 반복되며, 오직 2개의 각운만을 허용하는 형태의 시이다. ‘론델’은 규칙적인 7-16개의 행으로 구성되며, 2개의 운에 제한된 소리의 함축에 가치성을 둔다.

14) ‘회송곡(Poema rondelurilor)’은 2운각 13행시의 연작시로서 사후에 출간된 대표적인 상징시집이다. 총 6편으로 구성된 이 시집에는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4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총 6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Rondelurile pribege(방랑의 회송곡: 자연과 시인과의 안정적, 내면적 교감. 유년의 즐거운 회상이 나타나며, 이상의 조건과 예술가의 고통을 묘사), Rondelurile celor patru vânturi(네 바람의 회송곡: 자연찬미가로 모든 것은 재생하며, 도취의 행복과 신비의 매혹을 노래), Rondelurile rozelor(장미의 회송곡: 자연의 열광적 파열과 낙천성으로 지배. 모든 존재는 죽음과 고통에 대항하는 자연의 승리를 노래. 운명의 테마 속에서의 명상), Rondelurile rozelor de azi și de ieri(어제와 오늘의 장미들을 위한 회송곡: 동화의 세계를 꿈꾸며 자연과 정신의 교감), Rondelurile Senei(세느강의 회송곡: 지옥으로 대변되는 무섭고 어두운 분위기가 고통스럽게 표현. 회복할 수 없는 사악으로 포장된 사회의 재앙과 해체), Rondelurile de porțelan(도자기의 회송곡: 이국 풍경, 도자기, 그림 속에 나타난 자연의 소세계를 묘사).

15) 밤에 대한 4편의 연작시를 쓴 프랑스 시인 뮤세(Alfred de Musset)로부터 창작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12개월(1월-12월)의 밤과 3편의 밤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별도의 단행본이 아닌 각 시집에 3, 4편씩 나누어 발표되어 있다. 죽음의 동경, 매춘의 추함, 운명과 불행, 헌신적인 사랑, 자연의 조화, 이상을 추구하는 천재의 드라마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체돈스키에 있어서 자연은 시인의 영혼을 짓누르는 강박관념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소가 되며, 시인의 자아를 반영해주는 유일한 거울이 되고 있다. 또한 ‘괴물의 축수’와 같은 대도시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도피의 장소가 되며, 시인은 자연의 환기와 그에 따른 이미지의 매체를 통해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다.

전원의 물결은 길게 늘어뜨린 버드나무의 휴식 속에서 잠을  
청한다  
여기 저기 태양의 신성함이 금빛 물결을 치는  
일식의 반영 속에, 상냥한 양치기들이 아름다운 목가( )처럼  
창백해질 때,  
은하의 분홍빛 목가가 버드나무 숲 속에 공허히 울려 퍼진다.  
(전원의 물결 Bucolica undă)

이러한 자연은 시인의 절대적 사랑이자 정신적 도피의 안식처가 된다. 장미의 향기를 매개체로 대도시의 압박에서 벗어나 달콤하고 행복한 요람인 자연으로 도피하고 있다.

장미의 향기  
영혼 속에 취한 황홀감은  
은빛 달의 밤 속에 나를 내버려둔다.  
(은빛 밤의 회송곡 Rondelul nopței argintate)

도피는 이국적 풍경의 감상적 채색을 뛰어 넘어 ‘여행’을 자아의 공간 속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의 의미로 재탄생된다(Iliescu 1985: 184). 마체돈스키의 도피는 시간이라는 추억의 매개와 자연을 통해 시인 자신 속으로의 내적 도피가 이루어지며, 현실세계보다는 예술세계에로의 도피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도피는 추억의 매개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게 해주며, 늙음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일소시켜준다.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잃어버린 시인은 애도나 한탄보다는 냉담함과 무의식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죽음은 시인의 영혼과 의지를 결코 삼킬 수 없다.

꿈은 삶이다 : 난 알지, 사람들은 말한다 ;  
내일이 오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를 잠재울 것이다 ;

하지만 아직 삶은, 꿈의 소산이다,  
가능한 한 달콤한 꿈을 꾸어야 한다 !

(자정 이후 Dupe miezul nopții)

저 너머 세계의 침묵과도 같은 죽음은 시인에 의해 때때로 혐오와 슬픔으로 환기되기도 한다. 전 우주를 지배하는 죽음에 대해 시인은 한 편의 엽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선원들과 나그네들은 차가운 갑판 위에서 썩어간다,  
창백한 이마, 자줏빛 입술, 짝 쥘 주먹 그리고 치켜 뜬 눈,  
모두들 차례로 죽어간다 ; 다섯 그리고 여섯, 여덟 그리고 열,  
높은 더미로 쌓여간다, 누렇게 곰팡이가 핀.

(죽음의 배 Vaporul morței)

카론(Charon)의 신화(ref. Bulfinch 1993: 326-328) 또는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이가림 역 1993: 110-116)에 의해 언급된 ‘카론의 콤플렉스’에서처럼 여행으로 표현되는 죽음은 마체돈스키에게 있어서 배(방주)의 이미지와 함께 결합되고 있다.

시인의 대표시인 ‘12월의 밤(Noaptea de decembrie)’(1912)은 동양 전설을 각색한 산문 ‘메카, 메카(Meka și Meka)’(1890)의 영감 속에서 탄생하는데, 시인은 이 시속에서 협소한 세계의 테두리 안에 갇힌 시인의 조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되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왕자(emir)의 모습은 동요하지 않는 신념과 도덕의 상징이 되며,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누더기를 걸친 나그네’는 속세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적의에 찬 세계에 대항하는 존재인 시인은 적대감과 고통스런 현실 속에서 죽어간다. 창백한 시인의 방은 겨울의 차가운 분위기와 더불어 적의에 찬 사회를 암시하고 있다.

방은 황폐하고 희며, 죽어 있다...  
그리고, 난로의 불 아래 재들은 꺼져간다... -  
시인은, 나란히, 운명의 곁에 있다,  
어떠한 불꽃도 일지 않는 졸린 눈 속에 ...

물질세계의 소멸과 동시에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 세계가 부활한다.

영감의 동기가 실현되는 이 순간에 시인은 예술가의 이상적 조건을 찾고자 한다.

흙의 피조물은 오래 전에 소멸했다

죽은 방, 그리고 죽은 이는 시인이다... -

. . .

하지만 난로 밑의 재는, 갑자기, 깜박인다...

벽 위로, 파란 환영들이 달려간다...

굴뚝 위로 살아 있는 불꽃은 파열한다,

올라간다, 전율한다, 금이 간다, 이야기한다...

“금빛 대천사여, 당신은 무엇을 가져오시나요 ?”

그러자 불꽃은 말한다 : “나는 영감을 가져온다...

들어라, 그리고 노래하라, 젊음으로 부활하라... -

부활의 영광 속에 너의 한숨을 잠재워라...

나는 네가 권력과 부의 왕자가 되기를 원한다.” -

‘바그다드의 목가적 장미’를 포기한 왕자는 ‘누더기를 걸친 나그네’가 취한 우회로가 아닌 정도의 길을 따라 메카를 향해 떠난다. 그에게 있어 거룩한 성의 신기루는 하나의 강박관념이 되고 있다.

거룩한 성( )은 그를 부른다,

그의 느낌을 요구하며, 그의 존재를 요구한다,

그의 아름다움을 원하며 - 그의 모든 영혼을 원한다 -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 . .

하얀 성벽을 향해, 달리고 - 또 달린다,

그러자 하얀 성벽이 빛을 받는다 - 광채를 받는다, -

하지만 메카 역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빛의 바닥 속에서 메카를 빼앗는 보폭들만큼,

메카의 아름다움이 ‘황량한 빛 속에 환영으로’ 남을 때, 왕자는 거룩한 성의 문으로 다가가는 ‘누더기를 걸친 나그네’를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막의 켓터미 아래에서 왕자는 장엄한 비극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한다.

추한 나그네는 메카를 가로지른다 -  
그를 태운 낙타가 망설이는 동안...

그리고 사막의 잔화( ) 속에서 왕자는 죽는다 -  
방안의 불 역시 꺼진다.

절대성에의 도전은 비극적 죽음만을 강요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죽음의 이면에는 ‘가장 성스러운 메카’인 ‘천상의 메카’가 있다. 내면을 향한 양심의 길을 걸어 온 왕자는 시적 자아의 상징이 되며, 메카에 도달하고자 하는 왕자의 노력은 절대성에 도달하기 위한 시인의 투쟁으로 비유된다.

마체돈스키는 그의 시속에서 자아의 좌절과 실패, 존재의 이유, 시적 이상 등에 바탕을 둔 시적 주제들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의 독창성, 태도와 관념의 대담성, 기쁨과 우울을 동시에 가져오는 노래의 매혹, 이미지의 힘, 음을 조율하는 시의 학문적 조화, 시적 진취성 등은 모두 마체돈스키에 의해 완성되고 있으며, 루마니아 문학 속에서 취급되는 가장 중요한 시인들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Vianu 1972: 519-520). 이상과 현실 사이의 한계를 극복하며, 루마니아 문단에 새로운 현대적 사상을 소개한 마체돈스키는 지난 세기의 문학에 영향을 미친 많은 작가들 중에 에미네스쿠 다음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작가로 또한 반(反)쥬니미즘 정신과 더불어 1848년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으며(Firan 1975: 259), 루마니아 문단에 모더니즘의 길을 연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의 모더니즘은 상징주의의 도입과 발전을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양차 세계대전 동안 아방가르드(avangarda)나 초현실주의(super-realismul) 그리고 문예지 《꿈의 요정》(즈부러토룰: Sburătorul)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지향의 모더니즘 경향을 띤 문학의 흐름으로 발전해갔다.

## V. 초기 세머너토리즘 Presemănătorismul 계열 작가

19세기말부터 받아들인 국가 전통적 경향과 서구 지향적 경향의 문학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된다. 전자의 경우는 세머너토리즘과 포포라니즘(poporanismul)으로 발전되는데, 이러한 경향들 속에 참여한 작가

들은 19세기 중반을 지배했던 유니메아 문학에 대한 극복과 더불어 국가와 마을을 정신의 본질로 보고 문학활동을 영위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상징주의를 대표로 하는 모더니즘 경향들을 말하며, 서구 사조의 도입과 소개에 주력했다. 이 두 경향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국가적 문학 경향과 서구 지향의 모더니즘 경향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시문명과 자본을 배격하며 전통적인 국가와 마을의 정신을 수용한 문예지 《씨뿌리는 사람》(Semănătorul)은 1901년에 창간되었으며, 블라후쨌(Al. Vlahuță), 코쉬북(G. Coșbuc), 이오르가(N. Iorga) 등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준비는 멀게는 구비문학과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가깝게는 초기 세머너토리즘 계열 작가들에 의해 19세기 말로부터 이미 존재했었다

### 5.1. 제오르제 코쉬북 George Coșbuc

11884년부터 1889년까지 《연단》(Tribuna)<sup>16)</sup>에 작품을 기고하면서 문단에 데뷔한 코쉬북(George Coșbuc: 1866-1918)<sup>17)</sup>은 당시 작가들의 문학적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연단’에 발표된 수많은 시들은 민요, 전설, 동화, 민속 작품들에 대한 재조명과 개작(改作)적 적용의 경향을 보였다. 에미네스쿠의 죽음 이후에 전개된 루마니아 시문학은 마체돈스키의

16) 1884년 3월 17일 창간된 ‘연단’의 문화적 관심은 문학적인 측면에서 ‘대중적 사실주의’의 확산에 있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전 루마니아인들의 국가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기여하였다.

17) 1866년 사제의 아들로 너서우드(Năsăud) 근처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시인은 그의 고향 너서우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문학적 기질을 키웠다. 그가 시인으로서 자질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학생 단체의 문예지 ‘부활한 로마의 미덕(Virtus romana rediviva)’의 활동에 있었고, 이러한 문학적 관심은 클루즈(Cluj) 대학의 철학과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1884년부터 다양한 트란실바니아의 문예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슬라비치(Slavici)에게서 재능을 인정받은 시인은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그의 대표작인 ‘잠피라의 결혼(Nunta Zamferei)’을 완성한다. 자연주의를 따르지 않고 국가 본질 문학에 전념한 시인은 초기에 낙천주의적 세계관을 표방하나 후기에 와서 멜랑꼴리한 분위기의 시를 창작했다. 시인의 작품으로는 ‘민요와 목가(Balade și idile)’(1893), ‘실패(Fire de tort)’(1896), ‘게으름뱅이의 신문(Ziarul unui pierde-vară)’(1902), ‘용기의 노래(Cântece de vitejie)’(1904) 그리고 Vergiliu, Byron, Schiller 등의 작품들을 번역·소개하였다.

추종자들로 알려진 상징주의 시인들에 의해 지속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코쉬북은 잠피레스쿠, 토프르체아누(Topîrceanu) 등과 더불어 알렉산드리(Alecsandri)의 전통을 잇는 민족 정서적 창작에 몰입한다(Rotaru 1971: 589). 1884년부터 트란실바니아의 다양한 문예지에서 활동한 시인은 하레트(Spiru Haret)<sup>18)</sup>의 도움과 자극에 힘입어 1901년 블라후쨌와 함께 문예지 《씨뿌리는 사람》을 창간한다.

시집 『민요와 목가』(Balade și idile)(1893)에 발표된 시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민요적 경향을 보인다. 그의 민요들은 볼린티네아누(Bolintineanu)와 알렉산드리로부터 환기된 국가적 영감의 시, 국가의 자유와 사회의 정의를 위한 민중의 역사적 열망을 담은 서사시 그리고 인디아, 그리스-라틴, 아랍, 독일의 민요적 동기에 기인한 서사시로 구성된다(Nicolae 1994: 203). 그의 목가(牧歌)시들은 농민의 사랑과 농민의 노동 습관 그리고 마을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다.

루마니아 문학에 있어 고전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묘사한 시인의 독창성은 시대의 미학, 존재의 역사와 민중의 영감에 동의하는 예술가의 양심적 양식과 시적 창조 그리고 마을의 삶에서 영감된 시들 속에 존재한다. 그의 시는 단일 주제에 대한 연구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의 마을은 익숙한 삶 속에서 솟아난 놀라움이자 민족학상의 근원이 되고 있다.

코쉬북의 작품 세계는 자연과 시골에 대한 사랑시, 결혼이나 죽음과 같은 마을의 사건들에 대한 시, 독립을 위한 전쟁과 과거를 환기시켜주는 시(민중의 데체발 Decebal cătră popor, 젤루의 죽음 Moartea lui Gelu 등) 그리고 농부들의 노동, 땅의 불행, 지주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사회 개혁시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본능이 아닌 명상에 의해 지배 받는 시인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영혼의 경쟁과 대화에 대한 성찬을 가지고 있다(cf. Poantă 1976: 74). 자연과 시골에 대한 사랑시에 나타난 서정적 동요는 수줍음, 솔직함, 농담, 불확실, 열정 또는 불화로 환기 되는 시골 소년과 소녀의 느낌으로 표현된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 사랑의 충동은 소년의 어리석음을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때때로 짓궂

---

18) 수학자이자 교육자인 스피루 하레트(Spiru Haret: 1851-1912)는 계몽의 문화적 작업 속에서 교육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골 학교의 조직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다.

게 표현되기도 한다. 소년이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자,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읊조린다.

너는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나뻐어, 너를, 다른 소녀들처럼,  
그렇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었는데,  
나를 키스하며 안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단 한번만이라도 내게 물은 적이 있니?  
내게 키스하도록 나를 설득한 적이.

(너는 이해하지 못했어 Nu te-ai priceput)

루마니아 신화와 민속학적 동기 속에서 시인은 루마니아의 마을에 대한 서정적 연구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기획 속에서 시인은 결혼과 죽음처럼 마을의 삶이 담긴 사건을 표현한 두 편의 민요적 서사시를 노래하였다. ‘잠피라의 결혼(Nunta Zamfirei)’에서는 동화적·신화적 요소와 더불어 인종적·민속적 요소를 통해 시골의 결혼식과 농촌 마을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고, ‘풀제르의 죽음(Moartea lui Fulger)’에서는 죽음에 대한 고대 종교적 의식을 환기시켜준다.

황제의 아들인 풀제르(Fulger)는 낮은 곳에서의 전투에서 사망한다. 고대의 전통, 죽음의 의식, 애가의 조음과 더불어 표현된 부모의 고통은 시의 드라마를 극대화시켜주며, 죽음 앞에 놓여진 사랑의 표현은 비극적 상황에서 민중의 숭고한 이해로 전환된다. 비탄에 잠긴 어머니의 고통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절규와 신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왜 내가 지금부터 그를 믿어야 하나?  
그의 앞에 선 모든 이들이 가는 길은  
좋거나 나쁘거나, 늘 무덤으로!  
어떠한 악인도 없고 성인도 없는!  
믿음은 계곡, 사랑은 바람  
그리고 삶은 연기와 같도다!

(풀제르의 죽음 Moartea lui Fulger)

민속적 동기와 주제의 서사시로 기획된 대표시 ‘잠피라의 결혼(Nunta Zamfirei)’는 1889년 ‘연단(Tribuna)’에 처음 발표되었다. 동화의 범주 안에

자리잡은 예식(Micu 1994: 317)인 결혼은 한 마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 재단 위에 올려두는 정상처럼 아름다운 동화 속의 이름을 가진(Rotaru 1971: 591) 잠피라(Zamfira)는 화살처럼 강하고 부유한 한 영주의 딸이다. 그녀는 ‘먼 동쪽으로부터 온’ 아름다운 왕자 비오넬(Viorel)을 신랑으로 선택한다. 그녀의 결혼식에는 대가 그루이 Gruï, 산다 Sanda, 룩산드라(Ruxandra), 강한 힘을 가진 쥘테쉬(Ținteș)와 부인 리아(Lia), 신비한 산의 피난처에 기거하는 바르데쉬(Baedeș), 페네쉬 황제(Peneș-Împărat), 무구르 황제(Mugur-Împărat) 그리고 난쟁이 바르버코 (Barbă-Cot)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한다. 긴 쌍두 사륜마차의 행렬은 전형적인 시골의 결혼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오에 즈음하여, 저 멀리서  
 여명 속에서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신랑과 대부대모를 태운,  
 시부모와 하객들을 태운 사륜마차들,  
 그리고 아흔 명의 청년들이 말을 타고 온다.

시골 결혼식의 대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집행관은 신랑과 신부의 엄숙한 만남을 관장하며, ‘깃발’로서 입장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녀는 비오넬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가 손으로 그녀를 잡았을 때,  
 사랑으로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다, -  
 집행관이 깃발로 신호를 보내자  
 모두 긴 행렬로 천천히 출발하였다.

일련의 엄숙한 예식이 행해진 후 루마니아 민속춤인 호라(hora)의 예식이 이어졌다. 가장 절대적 순간으로서 호라의 예식(Piru 1981: 180)은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세 걸음 가볍게 왼쪽으로  
 그리고 다른 세 걸음은 오른쪽으로 ;  
 손을 잡았다가 다시 떼어내는  
 원을 그렸다가 다시 지우는,

‘포도주가 강을 이루는’ 그리고 ‘식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성대한 만찬은 즐거운 축제의 동반자이며,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음과 노래 소리는 ‘놀란 태양이 제자리에 멈춰 설’ 정도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예식이 있어 마지막 축원은 늘 어른들의 몫이었다.

신랑신부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내년에는 왕자님을! 조그맣고 귀여운,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  
그러면 아기의 침례식때 한번 더 놀아보자!

그의 시에는 마을의 순간 순간들이 늘 존재한다. 시각적 진술과 전원의 투영은 시골의 느낌과 언변, 친밀한 행동들의 도약, 시골 소년과 소녀 그리고 농부들의 삶과 태도를 부각시킨다. 마을의 이미지는 충만된 그들의 영감, 고통과 기쁨, 그들의 존재 양식과 교감한다. 코쉬북에게 있어서 마을은 그리움의 대상, 신뢰와 전통, 민속학과 지리적 근원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때때로 국가의 존엄과 자유를 위한 투쟁 그리고 사회적 봉기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 5.2. 델라브란체아 Barbu Ștefănescu Delavrancea

자연주의와 초기 세머너토리즘의 대표 작가인 델라브란체아(1858-1918)<sup>19)</sup>는 산문가, 소설가, 희곡 작가로서 그리고 강연자로서 세기말의 루마니아 문학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델라브란체아 이전의 루마니아 단편 소설의 근현대적 전통은 1840년 《문학 다치아》(Dacia Literară)에 발표한 네구르지(Costache Negruzzi)의 ‘알렉산드루 너뿌쉬네아눌(Alexandru Lăpușneanul)’<sup>20)</sup>의 성공으로부터

19) 짐마차꾼의 아들로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출생한 작가는 부쿠레슈티와 파리에서 수학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변호사, 기자, 소설과 희곡 작가로서 활동한 델라브란체아는 1855년 처녀작 ‘술터니카(Sultănică)’로 문단에 데뷔하였다. 이후 ‘음유시인(Turbadrul)’(1887), ‘기생(Paraziții)’(1892), ‘하지 투도세(Hagi-Tudose)’(1887) 등과 같은 소설들을, 그리고 몰도바의 역사로부터 영감된 3편의 희곡 ‘몰도바의 3부작(Trilogia Moldovei)’(1909 (석양 Apus de soare, 눈보라 Viforul, 새벽 Luceafărul)을 창작했다. 또한 ‘조국과 애국(Patria și patriotism)’(1915)과 같은 연설을 통해 강연자로서의 재능을 보이기도 했다.

시작된다. 이러한 단편소설의 전통은 알렉산드리의 ‘플로렌짜의 꽃파는 소녀(Buchetiera de la Florența)’(1840), 오도베스쿠(Al. Odobescu)의 ‘악덕 영주 미흐네아 보더(Mihnea-Vodă cel rău)’(1857), 필리몬(N. Filimon)의 ‘어느 하인의 불행 또는 변두리의 신사들(Nenorocirile unui slujnicar sau Gentilomii de mahala)’(1863)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에미네스쿠의 ‘가난한 디오니스(Sărmanul Dionis)’, 슬라비치(Slavici)의 ‘행운의 방앗간(Moara cu Noroc)’, 크레안거(Creangă)의 ‘니키포르 코뜨까리울 영감(Moș Nichifor Coțcariul)’에 이르러 단편 소설의 절정을 이룬다.

델라브란체아의 산문은 주제뿐만 아니라 유형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다. ‘옛날에(Odinioară)’에 있는 많은 ‘이야기(Povestiri)’들은 과거와 민속학적 사건들 그리고 유년의 추억과 전원적 느낌들을 환기시키는 단막 소설(Schiță)로 구성되어 있다. 동화들의 풍부한 서정성에 기인한 시적 주제의 아름다운 묘사들은 예술의 항구적 요소로서 그의 작품 속에 자리하고 있다(Vianu 1988: 138). 이러한 산문적 관심은 단편 소설들에 의해 한층 더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작가의 단편은 예술적 양식과 문학적 동기에 따라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농촌마을의 생활로부터 영감된 소설로서 ‘숄터니카(Sultănică)’(1885)처럼 낭만주의적 시각과 사랑의 동기를 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연주의적 양식 속에서 죽음과 물리적·도덕적 결함을 표현하고 있는 소설로서 동양을 위해 흠친 아이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앵벌이를 시키는 도둑의 삶을 다룬 ‘걸인(Milogul)’, 무아지경 속에서 깨어나고 한

---

20) 주제, 성격, 시대, 배경 면에서 가장 낭만주의적 성격과 작가의 심리·사회학적 관찰과 사실주의적 직관이 조화를 이룬 루마니아 최초의 가치있는 역사소설(김성기 1999: 79): 러뿌쉬네아누(Lăpușeanu)는 16세기의 루마니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인물이다. 몰도바 영주 자리에서 강제로 추방당한지 3년 후 러뿌쉬네아누는 다시 영주로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옛 적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한다. 평화와 화해를 갈망하는 그의 부인 룩산드라(Ruxandra)에게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만찬에서 74명의 지주귀족들을 죽이고 그 머리들로 피라미드를 쌓는다. 단지 두 명의 귀족 스트로이치(Stroici)와 스파치오크(Spancioc)만 도주에 성공한다. 이들에게 쫓겨 러뿌쉬네아누는 호틴(Hotin)성으로 철수하나 말라리아 열병에 걸리고 사경을 헤매게 되어 그는 건강해지면 수사가 되겠노라고 맹세하게 된다. 이 사이 스트로이치와 스파치오크는 부인 룩산드라를 설득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행을 주지 않도록 그에게 독이 든 잔을 주라는 설득에 성공한다.

나무로부터 떨어져 죽는 몽유병자의 이야기 ‘음유시인(Turbadrul)’(1887)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결함과 부도덕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다루며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표현된 소설로서 ‘기생(Paraziții)’(1892), ‘하지 투도세(Hagi-Tudose)’(1887) 등이 있다.

‘하지 투도세’에서는 비정상적 사회 조건 속에 나타난 과도한 탐욕의 주제를 접할 수 있으며, 현상의 심리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 투도세는 정신 병리학적 관점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광적 수전노(Rotaru 1971: 584)와 구두쇠의 이미지를 가진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의 인색함의 단계적 변화는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차며, 비인간화의 절정에까지 이른다. 레아나(Leana)가 만들어준 스프를 훔쩍이던 하지 투도세는 ‘금 맛을, 생생한 금의 피 맛’을 느낀다. 레아나가 방에 들어서자 구두쇠는 그녀에게 소리친다.

“불을 꺼!... 숯과 채를 돌려줘!... 수프를 던져버리고 고기와 깃털을 돌려주란 말야!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쯤은 돈으로 돌려 받아야해!”

그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살인자!... 미친놈!... 무신자! 너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거야!”

레아나는 몸이 굳어진 채 그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 때 배고플 때나 추울 때 유일한 친구였고 그녀를 위로해 주던 수코양이가 문에서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레아나는 문을 살짝 열었다. 하지는 놀라서 쳐다보았고 수코양이가 문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꼬리를 잘라!... 그 꼬리를 잘라버리란 말이야! 그 기다란 꼬리를 말이야. 그 고양이가 들어오는 사이에 방이 추워진단 말이야... 그 고양이 때문에 내가 돈을 내야 해? 도끼 어디 있어? 내가 그 꼬리를 잘라버릴 거야!” (김성기, 1995: 24)

하지 투도세는 물질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사탄의 이상과 돈에 의해 비인간화된 전형이다(Alexandrescu 1995: 170). 정상의 한계를 넘어선 전형적인 구두쇠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지 투도세는 작가 텔라브란체아로 하여금 단편 소설가로서의 성공과 입지를 보장한 작품이다.

서정적 기질과 낭만주의적 역사 드라마의 경향(cf. Micu 1994: 320)을 띤 텔라브란체아는 단편 이외에 낭만주의적 분위기가 강하게 묘사된 3부

로 구성된 희곡 ‘몰도바의 3부작(Trilogia Moldovei)’(4막으로 구성된 ‘석양 Apus de soare’ 1909, 4막으로 구성된 ‘눈보라 Viforul’ 1909, 5막으로 구성된 ‘셋별 Luceafărul’ 1910)의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 역사 희곡의 대표작인 하쉬테우(Haşdeu)의 ‘러즈반과 비드라(Răzvan și Vidra)’, 알렉산드리의 ‘데스포트 영주(Despot-Vodă)’, 다빌라(Al. Davila)의 ‘블라이쿠 영주(Vlaicu-Vodă)’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Săndulescu 1996: 232) 이 3부작의 희곡은 역사 주제의 반복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영웅이 등장하는 무대와 사건 그리고 인물들의 충돌을 훌륭히 전개하고 있다. 역사와 문학을 초월해 애국의 표본이 된 영주이자 용감한 ‘몰도바의 사자’인 슈테판 쉘 마레(Ștefan cel Mare), 그의 할아버지 슈테판 쉘 마레가 누렸던 영광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이 뒤섞인 멜란콜리한 성격을 가진 그리고 맹목적이고 문제적인 인물로 이해되는 슈테퍼니짜(Ștefăniță) 등의 인물들을 통하여 애국주의와 더불어 몰도바(Moldova)의 지난 역사로부터 중요한 면들을 환기시킨 이 작품은 낭만주의 시각 속에서 영웅들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독백이나 감탄사를 이용한 수사학적 스타일과 희곡의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 5.3. 잠피레스쿠 Duiliu Zamfirescu

시, 단편, 희곡작가로 알려진 잠피레스쿠(Duiliu Zamfirescu: 1858-1922)<sup>21)</sup>는 시분야에 있어 알렉산드리, 에미네스쿠, 마체돈스키, 데메트레스쿠(Traian Demetrescu) 그리고 코쉬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시들은 고답파적 신고전주의 경향을 보여준다. 시속에 자주 등장하는 고답파

---

21) 플라이네슈티(Plăinești)에서 출생한 잠피레스쿠는 포크샤니(Focșani)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뒤 부쿠레슈티 법대에 진학하여 1881년 법관이 되었다. 판사 생활을 하며 대리 교사로도 근무를 했던 작가는 몇 편의 시 작품으로 1877년 까라지알레(Caragiale)의 잡지 ‘가시(Ghimpele)’, 그란데아(Grandeia)의 잡지 ‘전쟁(Războiul)’, 마체돈스키(Macedonski)의 잡지 ‘문학인(Literatorul)’에 등단했다. ‘자유 루마니아(România liberă)’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잠피레스쿠는 1884년 마체돈스키와의 관계를 종식하고, 슈니메아의 기관지 ‘문학좌담(Convorbiri literare)’에서 장단편의 소설들을 발표한다. 1885년 외교통상부에 들어간 작가는 1888년부터 1906년까지 이태리, 벨기에, 그리스 등 외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였고, 귀국 이후 포포라니즘(poporanismul) 문학 경향에서 활동하며 1909년에는 학술원의 회원이 되었다.

적 신고전주의 주제들은 후에 버러간(Bărăgan) 평야의 소 떼들을 묘사한 소설 ‘시골 생활(Viața la țară)’의 풍경에서 보다 섬세하게 나타난다. 잠피레스쿠의 고답파적 묘사는 장식적인 고대 신화학과 기하학적 시의 냉정함으로 표현된다.

침묵의 눈물들이 초목으로부터 떨어진다  
그리고 반암의 수로위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  
여울 아래에서는 오르피어스<sup>22)</sup>가 칠현금을 탄다  
아틀라스<sup>23)</sup>의 굽은 등위에 떠있는 지구 위에서.

신화학과 기하학적 묘사 외에도 그의 시에는 초원과 전원, 루마니아의 들판, 계절과 사물의 풍경 그리고 감상주의와 낭만적 명상들이 하나의 합성체로서 광범위하게 환기되고 있다.

잠피레스쿠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문학적 영향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그중 세머너토리즘적 경향은 그의 작품에서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이룬다. 단편소설 분야에 있어서 그의 소설들은 하나의 보고서가 연작된 형태로서 낭만적인 명상과 인물에 대한 심리적인 관찰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루마니아 문학사에 있어 작가 잠피레스쿠는 ‘연작 소설(Romanul ciclic)’<sup>24)</sup>의 창시자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저항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의 대표작인 ‘꼬머네쉬테아누 일가 시리즈(Ciclul Comăneștenilor)’는 정형성과 단순함에 바탕을 둔 연작기법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산문에 있어 연작기술로 불려지는 새로운 창작기법을 처음 시도한 작품으로 문학사가들 사이에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cf. Rotaru 1971: 611).

‘꼬머네쉬테아누 일가 시리즈(Ciclul Comăneștenilor)’는 꼬머네쉬테아누 일가와 그 주변에 얽힌 얘기를 다룬 5부(시골 생활 Viața la țară [1898], 터나세 스카티우 Tănase scatiu [1907], 전쟁에서 În război [1902], 개선

---

22) Orpheu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라키아(Thracia)의 음악가로서 그가 연주하는 하프가락은 동물이나 새, 초목까지도 매혹시켰다고 한다.

23) Atlas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제우스에 반역하여 별도로 하늘을 두 어깨로 떠받치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장사이다.

24) ‘연작 소설(Romanul ciclic)’은 작중 인물들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대를 통해 주인공들의 운명을 뒤쫓는 일련의 연속적 소설들로 구성된 서사적 작품을 의미한다.

Îndreptări [1908], 안나 Anna [1910])로 구성된 연작 소설로서<sup>25)</sup> 대하 드라마 소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가 로마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저술한 이 작품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농민 터나세 스카티우(Tănase scatiu)가 전통적인 지주 가문의 형통을 갖춰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꼬모네쉬테아누 가문의 딸 싸샤(Șașa)와 결혼하고자하는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빈곤과 착취가 정신적 폐허와 야만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실주의적 시각으로 보여준 소설이다.

‘꼬머네쉬테아누 일가’의 5부작 중 ‘시골 생활(Viața la țară)’과 ‘터나세 스카티우(Tănase scatiu)’는 내면적 삶의 환기(Vianu 1988: 151)와 더불어 초기 세머너토리즘적 경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사회분야의 적용에 있어 사실주의적 관찰의 경향을 보인 두 편의 소설은 자서전적 요소가 가미된 동시대적 사실성에 영감을 받았으며, 1880년 이후에 발생한 농민들의 움직임에 대한 전조와 암시의 모태가 되었다. 막 새롭게 출발하는 영주의 오명과 옛 삶 속에서의 귀족들의 이상화 경향이 상반된 체 결합된 그의 소설은 예술적 객관화와 구체화를 향한 작가의 노력과 사실주의에 기인하여 전개된다. 그의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농민의 봉기는 후에 레브레아누(Rebreanu)로 대표되는 고통스러운 사실주의적 묘사의 전형이 되고 있다. 주인공 터나세 스카티우(Tănase scatiu)와 싸샤(Șașa)는 시골 생활의 전원을 환기시켜주는 매개체이며, 싸샤는 루마니아 문학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하나로 각인되고 있다.

#### 5.4. 블라후찌 Alexandru Vlahuță

코쉬복과 함께 1901년 문예지 《‘씨뿌리는 사람》을 창간한 블라후찌(Vlahuță: 1858-1919)<sup>26)</sup>는 ‘에미네스쿠주의’<sup>27)</sup>의 사상적 영향하에서 초기

25) 연작소설 ‘꼬머네쉬테아누 일가’를 구성하고 있는 5편의 단편 소설들은 16년 동안 문예지 ‘문학좌담(Convorbiri literare)’과 ‘루마니아 예술과 문학(Literatura și arta română)’에 연속적으로 기고되었다. ‘시골 생활(Viața la țară)’은 1894-1895년, ‘터나세 스카티우(Tănase scatiu)’는 1895-1896년, ‘전쟁에서(În război)’는 1897-1898년 동안 ‘문학좌담’에, ‘개선(Îndreptări)’은 1901-1902년 동안 ‘루마니아 예술과 문학’에, ‘안나(Anna)’는 1906-1910년 동안 ‘문학좌담’에 기고되었지만, 사실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꼬머네쉬테아누 일가’는 580쪽의 분량을 넘지 않는 장편 소설이다(cf. Piru 1981: 171).

창작활동을 하였다. 시 창작의 경향에 있어서 블라후찌는 에미네스쿠의 작품관과 사상을 추종하는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에미네스쿠에게 Lui Eminescu 1884). 에미네스쿠를 추모하는 시 ‘우리들의 몽상가들은 어디 있는가(Unde ni sînt visătorii?)’(1892)를 통하여 시인은 낙천적인 시의 전형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시인의 미학적 사상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늘 집착되어 있는 상상의 고통과 싸우면서 고아하고 청명한 느낌들로부터 발아된 마음을 노래한다.

나는 자문한다, 그치지 않는 이 신음이 무엇인지,  
어두운 시선과 잔상( )에 처한 이 민족이 누구인지,  
지치고 창백한 젊은이들의 형상들인 그리고,  
울음에 젖은 슬픈 시인들은 상상의 고통을 노래한다,  
보다 고매하고 청명한 느낌들로부터 나온 기이한,  
어떠한 싸움도 마다한 채, 의기소침한 채 내버려둔 마음들!

에미네스쿠의 음악에 바탕을 둔 영혼의 허무주의는 블라후찌에 의해 사회적 투쟁과 창조의 낙천주의로 바뀐다(Vianu 1972: 684). 시인은 시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의 영혼 속에서 인문적 이상과 세계를 향해 열려져 있기를 바랐으며, 시인으로 하여금 찬란한 자연과 세계의 의미를 노래하도록,

---

26) 소지주의 아들로 브르라드(Bârlad) 근처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작가는 브르라드와 부쿠레슈티에서 고등교육을 마친후 부쿠레슈티 법대에 진학하나 중퇴한다. 트르고비슈테(Târgoviște)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조화(Armonia)’라는 지방지를 출간하기도 한 작가는 1881년 몇 편의 시들과 함께 문단에 데뷔했다. 에미네스쿠주의(eminescianismul)의 대표작가로서 초기에 문예지 ‘문학좌담(Convorbiri literare)’에서 활동했으며, 코쉬부크(Coșbuc)과 함께 문예지 ‘삶(Vieața)’(1893-1896), ‘씨뿌리는 사람(Semănătorul)’(1901-1910) 편집에 참여하였다. 에미네스쿠적 성향을 추종하는 시와 풍자시 외에도 사회적 문제를 테마로 다룬 일련의 소설들을 발표하였다. 작품으로는 ‘단편(Nuvele)’(1886), ‘시(Poezii)’(1887), 소설 ‘단(Dan)’(1894), ‘오래된 시와 새로운 시(Poezii vechi și nouă)’(1894), ‘잊혀진 성상(Icoane șterse)’(1895), ‘사랑(Iubire)’(1895), ‘소용돌이(În vârtoare)’(1896), ‘고요의 순간들(Clipe de liniște)’(1899), ‘루마니아 스케치(România pictorească)’(1901), ‘화가 니콜라에 그리고레스쿠(Pictor Nicolae Grigorescu)’(1910)이 있다.

27) ‘에미네스쿠 주의’는 시인 에미네스쿠의 작품과 사상을 함축시켜 놓은 용어로서 그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동기와 테마들을 수용하여 경작하는 일련의 경작과 흐름을 뜻한다(Cf. DEX 1996: 339).

사색하는 대중의 명상을 표현하도록 그리고 예언적 소명과 시각적 영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cf. Micu 1994 : 324).

에미네스쿠의 추종시, 사랑과 명상시 외에도 시인은 염세적이고 나태한 시인들, 걸핏하면 싸움이나 하는 비열한 장교 그리고 품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물들을 풍자하는 시를 썼다. 농민들의 봉기와 유혈적 진압이 있던 후 시인은 사회의 부정의와 부조리에 대한 우화적이고 비유적인 시 ‘1907’를 쓴다. 그는 농민들의 봉기를 촉발시킨 유산계급의 사회적 체제, 왕의 아첨꾼, 벼락부자 그리고 거짓말을 그의 시에서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에미네스쿠 추종시와 풍자시 외에 작가는 단편소설 ‘세계의 고통으로부터(Din durerile lumii)’<sup>28)</sup> 와 장편소설 ‘단(Dan)’<sup>29)</sup> 과 같은 대표작들을 창작한다. 소설 ‘단’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실레 단(Vasile Dan)은 사도베아누(Sadoveanu)의 소설 ‘네쿨라이 마네아의 기록(Însemnările lui Neculai Manea)’,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Locul unde nu s-a întâmplat nimic)’ 그리고 보이네쉬티 I. Al. Brătescu-Voinești, 바사라베스쿠(I. A. Bassarabescu) 등의 작품에 나타나는 몰도바의 영웅적 주인공의 전형이 되었다(Rotaru 1971: 577). 이들 외에도 박해받는 진솔한 서민들의 삶으로부터 영감된 이야기 ‘비산(Vișan)’, ‘까시안(Cassian)’ 그리고 단막 산문(schiță) ‘난장이(Mogîldea)’, ‘계산(Socoteala)’ 등과 같은 사회적 주제들을 다룬 산문과 소설들을 창작했다.

교육적이고 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보고서와 같은 ‘루마니아 스케치(România pitorească)’(1901)는 루마니아 민족사에 대한 사랑과 비유로 충

---

28) 시골의 한 근면한 청년 라두 문테아누(Radu Munteanu)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중 그의 삶에 큰 곤경이 찾아온다. 첫 번째는 그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으며, 두 번째는 한 부유한 친구의 누이를 낭만적으로 흠모한다. 평균 이하의 빈곤한 경제와 병의 악화로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죽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자전적 성격을 띤 이 단편의 주제는 포포라니즘과 세머너토리즘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9) 브르라드(Bârlad)의 한 검소한 공무원의 아들인 바실레 단(Vasile Dan)은 부쿠레슈티 소녀기숙사학교의 선생이 되며, 또한 시인으로 활동하지만 학술원의 시상에서 매번 좌절한다. 도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길 동의한 지주의 딸인 아나 락리쉬(Ana Racliș)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고귀한 관심에 헌신한 삶의 희망은 이내 소멸된다. 지방의 한 지역 판사 자리를 수락해야만 한 주인공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극에 달한다. 이러한 고통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으며, 급기야 병리적인 현상 속에 빠지게 만든다.

만된 여행기로 농민의 찬사와 더불어 루마니아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묘사하였다. 다뉴브 강 하류에 있는 철의 문(Porțile de Fier)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작가는 수많은 루마니아의 지역들로부터 흑해와 ‘뱀 섬(Insula Șerpilor)’에 이르기까지, 이후 네암쯔(Neamț) 지방의 산악지대로부터 부코비나(Bucovina) 지방의 수도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비스트리짜(Bistrița)와 부쿠레슈티 등 다양한 루마니아의 산천을 묘사하고 있다(Costin 1997: 62). 조국과 자연의 아름다움, 민중의 투쟁 발자취 그리고 민중의 창작에 대한 작가의 열정은 ‘루마니아 스케치’에서 자주 접하는 서정적 표현들이며, 블라후찌는 루마니아 문학에 있어 이러한 형태의 묘사를 시도한 최초의 작가들 중에 하나이다.

## VI. 맺는 말

19세기 중반 유니메아로 대표되어 지는 일련의 문학 움직임은 역사적·문화적 상황으로 인하여 그 종말을 고하나, 유니메아 문학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작가들과 비평가들의 활동은 19세기말의 루마니아 문단뿐만 아니라 양차 대전동안의 문학 그리고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서정적·산문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적 토대가 되고 있다.

에미네스쿠로부터 시작되는 근현대시의 전통성은 모더니즘의 경향에서 마체둔스키, 바코비아, 미눌레스쿠, 아르게지(T. Arghezi), 바르부(I. Barbu) 등 그리고 민족 정서와 전통의 경향에서 코쉬북, 블라후찌, 고가(O. Goga), 블라가(L. Blaga) 등과 같은 시인들에 의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19세기초와 더불어 더욱 심화된 산문 분야는 19세기말에 와서 심리 장편과 단편소설(nuvela și romanul psihologic),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산문(proza realistă și romantică), 환상 산문(proza fantastică) 그리고 연작 소설(romanul ciclic) 등으로 분과되어 발전되었다. 슬라비치, 까라지알레(I. L. Caragiale), 네구르지(C. Negruzzi) 등으로 대표되는 심리·사실주의적 장편과 단편 소설의 시도는 레브레아누(L. Rebreanu), 까밀 페트레스쿠(Camil Petrescu), 벤체스쿠(H. Papadat-Bengescu), 프레다(M. Preda) 등에 의해, 크레안거(I. Creangă) 등으로 대표되어 지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 산문은 사도베아누(M. Sadoveanu) 등

에 의해 그리고 환상 소설과 산문은 갈락손, 체자르 페크레스쿠(Cezar Petrescu), 보이쿨레스쿠(V. Voiculescu), 엘리아데(M. Eliade) 등에 의해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 또한 마이오레스쿠(T. Maiorescu) 등에 의해 개척되어진 비평(critică) 분야는 로비네스쿠(E. Lovinescu)와 켈리네스쿠(G. Călinescu) 등에 의해 이론적·실험적 토대가 완성되어 진다.

쥬니메아의 시대가 지나 간 후, 문학 사조와 경향에 있어서 루마니아 문학에는 전통성을 추구하며, 마을에 근본 정신을 둔 문예사조인 서머너토리즘과 포포라니즘이, 그리고 모더니즘을 추구하며, 도시에 근본 정신을 둔 상징주의가 도입된다. 낭만주의 시대 이후 세기말 세기초에 형성된 일련의 문예사조들은 현대 루마니아 문학을 형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19세기말에 나타난 서머너토리즘, 포포라니즘, 상징주의 등의 사조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서서히 그 종말을 고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다다이즘이나 아방가르드 또는 초현실주의 경향의 시들과 혼용된 채 루마니아 시문단을 장식한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는 전통에 의존하는 국가적 경향을 띤 문학흐름과 서유럽 지향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띤 문학흐름이 대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 참 고 문 헌

- 김성기. (1995). 『숲속의 동화 外』. 서울: 한국외대 출판부.  
 \_\_\_\_\_. (1996). “루마니아 문학의 시대적 경향”. 『외국문학연구』 창간호.  
 \_\_\_\_\_. (1999). 『루마니아학 입문』. 서울: 한국외대 출판부.  
 김정환. (2000). “루마니아 상징주의 시테마”. 『동유럽발칸학』 2.  
 바슐라르, 가스통(Gaston Bachelard). (1993). 『물과 꿈』. 이가림 역. 서울: 문예출판사.  
 박정오. (1997). “19세기 루마니아 리얼리즘 소설의 출현과 문학논쟁”. 『동유럽연구』 6.
- Alexandrescu, Emil. (1995). *Analize și sinteze de literatură română*. Iași: Moldova.

- Bote, Lidia. (1966). *Simbolismul românesc*. Cluj: Ed.pt.literatură.
- Bulfinch, Thomas. (1993). *The Golden Age of Myth & Legend*. London: Wordsworth.
- Constantinescu, Pompiliu. (1974). *Poeți români moderni*. Buc.: Minerva.
- Costin, Oana. (1997). *Istoria ilustrată a literaturii române*. Iași: Porțile orientului.
- DEX. (1996). *Dicționarul explicativ al limbii române*. Buc.: Univers enciclopedic.
- Firan, Florea. (1975). *De la Macedonski la Arghezi*. Craiova.: Scrisul românesc.
- Galdi Ladislau. (1971). *Introducere în istoria versului românesc*. Buc.: Minerva.
- Iliescu, Adrian. (1985). *Poezia simbolistă românească*. Buc.: Minerva.
- Manolescu, Nicolae. (1968). *Metamorfozele poeziei*. Buc.: Ed.pt.literatură.
- Marino, Adrian. (1967). *Opera lui Alexandru Macedonski*. Buc.: Ed. pt. literatură.
- Micu, Dumitru. (1994). *Scurtă istorie a literaturii române*. vol .I. Buc.: Iriana.
- Nicolae, Nicolae. I. (1994). *Limba și literatura română*. Buc.: didactică și pedagogică.
- Piru, Al. (1981). *Istoria literaturii române de la început pînă azi*. Buc.: Univers.
- Poantă, Petru. (1976). *Poezia lui George Coșbuc*. Cluj-Napoca: Dacia.
- Rotaru, Ion. (1971). *O istorie literaturii române*. vol .I. Buc.: Minerva.
- Săndulescu, Al. (1996). "Postfață" in *Barbu Delavrancea*. Buc.: 100+ 1 Gramar.
- Streinu, Vladimir. (1939). "Al. Macedonski" in *Viața românească*. XXXI(4).
- Vianu, Tudor. (1972). *Opere*. vol. II. Buc.: Minerva.
- \_\_\_\_\_. (1988). *Arta prozatorilor români*. Buc.: Minerva.
- Zaciu, Mircea. (1975). *Lecturi și zile*. Bu.: Eminescu.

<<Abstract>>

## Romanian Literature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Jeong Hwa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how Romanian literature deploys in the end of 19th century and how some authors adapt their activities to the experience of manufactured articles based upon diverse trends of literary thoughts. Literary currents and manufactured articles under the influence of *Junimea* literary movements, come to realize the imaginary world which was to create other world by modernism, realism, presemănătorism and by transforming virtual reality into spiritual reality.

The Romanian criticism under the influence of Maiorescu's critical styles was developed by Gherea's new critical method. His theoretic works like *About critique*, *About metaphysical and scientific aesthetics* etc. introduce other visual angle as critique of materialism, scientific and analytic criticism in Romanian literary world, in opposition to aesthetical principle of *Junimea* and classical method of criticism.

Romanian modernism i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by Alexandru Macedonski through the his literary magazine *Literatorul* (Literary man, 1880). He cultivates and develops symbolistic theory and practice in his theoretic works as *About logics of poetry*(1880), *Art of poems* (1881), *Future poetry*(1892) and invents new theory named 'Instrumental symbolism' or 'Instrumentalism' which emphasize the point of musicality and role of poetic image.

Some literary trends from middle of 19th century like *Junimea*

literary movements disappear in historic and cultural situation, but authors' activities in those times became cultural foundation which develops Romanian literature. After epoch of *Junimea*, presemănătorist authors George Coșbuc, Barbu Ștefănescu Delavrancea, Duiliu Zamfirescu, Alexandru Vlahuță prepare the appearance of semănătorism which has traditional and national tendency based upon spirit of land and peasants. They always prefer idilic world and realistic sentimentalism and aspire to the true soul in rural world.

Romanian literature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as influence on evolution, expansion of poetic categories and prosperity of posterior generation in Romanian poetic literature.

- 김정환

한국외대 루마니아어과 강사. 루마니아 상징주의, 루마니아 시 테마와 이미지, 루마니아 저널리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우) 449-791. tel: 019-289-1215/e-mail: bacovia94@hotmail.com